

1029(토) 요한복음 4-6장 생명을 주시는 예수

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
지금 생명을 주시며,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.

예수님은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들에게
속에서 영생토록 솟는 샘물을 주십니다(4:10,14).
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(5:21,26)
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며
가망 없는 자까지도 살아나게 됩니다.
(4:50,53,5:24/4:47,5:5, 표적**23**)

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(6:35,41,48,51, 이름**2**)
<육신의 떡>으로도 배부르게 하실 것이며(6:11-13),
<참된 양식>으로 영원한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(6:32-35).
출애굽/홍해/만나에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이(6:4,49, 유월절)
바다를 건너며 먹이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(6:11,19, 표적**45**).
참된 떡과 참된 음료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며
마지막 날, 살리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(6:35,48-58).

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<천국>입니다.
주님을 알고 믿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
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(5:24).
지금, <생명의 영역>에 있는 것입니다(현재/완료시제).

그럼에도 구원은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.
예수님 안에 거하되 끝까지 거해야 합니다.
(5:14,6:66-69)

- ❶ 우리들의 인생에 목마름은 무엇이고 목마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?
- ❷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목마름이 해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요한복음 4-6장 (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, 별첨)

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

복음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,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.

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, 경험하며, 제자로의 결단을 요청합니다.

이 중에서도 마태/마가/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(空觀福音書)라고 불립니다.

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, 관심, 묘사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.

공관복음서는 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의를 다룹니다.

갈릴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, 예수님은 일화 속 인물로 등장합니다.

신학적 논점은 가급적 비유나 대중적 표현으로 쉽게 풀어냅니다.

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,

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관계, 제자를 특징짓는 가치들에 집중합니다.

등장인물로서의 예수님보다 말씀하시는 <화자> 예수님으로 더 많이 등장합니다.

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지적/신학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.

요한은 성전절기와 예루살렘 지역을 자주 언급하며 유대/헬라/로마문화,

구약/예수시대를 넘나들며 신학적 담론들을 쉬운 풀이 없이 진행합니다.

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이 <하나님의 아들>임을 집중 선포합니다.

요한복음은 <믿음>의 책입니다.

<믿는다>라는 단어가 98번이나 언급됩니다(마태14회, 마가11회, 누가9회).

명사형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모두 동사형으로만 쓰였습니다.

독자들에게 능동적/적극적으로 믿고 행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.

요한은 예수님이 <하나님의 아들>인 증거로 8가지 표적을 보입니다.

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<나는-이다>를 소개합니다(9개).

표적을 보고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,

지속적인 신뢰 가운데 거하는 것을 <믿음>이라고 말합니다.

요한은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<성령>을 상세히 다룹니다.

_데이비드 A. 드실바, 신약개론, CLC

_심상범, 요한복음의 주제와 구조, 두란노HOW